

글로벌 인재 발굴, KOVA를 주목하라

“네팔에서 한국의 한 업체가 지하수를 끌어올려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온갖 중장비를 가지고 트럭이 올라가기도 힘든 오지의 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가 6월 즈음이었죠. 네팔은 6월부터 9월이 우기라서 공사를 할 수 없는 데 말입니다.”



네팔에서 2년간 자원봉사를 했던 KOVA(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www.kova.org) 이선무 사무국장의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기업인들이 그 업체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팔 등 오지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서는 얻기 힘들다. 게다가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 업체의 경우처럼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실패를 맛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다가 그 지역의 정보 전문가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해외봉사 인력들을 활용하면 적어도 위와 같은 터무니 없는 실수는 예방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KOVA의 지역정보 전문가를 활용하라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신흥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사업 기회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 인프라가 미비하고 교육 수준이 낮아 영어도 통하지 않는 국가로 진출하는데 감히 도전조차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미개척지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와 생활 정보, 문화, 사업 환경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성향이나 기호 등을 속속들이 파악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KOVA라는 단체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KOVA는 한국 각 분야의 전문 봉사 인력들을 세계 곳곳에 파견해 지원한다. 이 봉사 인력들은 대개 2년간 해당 국가에서 생활하며 그 나라의 언어와 환경에 익숙해질 뿐 아니라 현지 고위관료들을 포함해 다양한 인맥도 형성하고 있다. KOVA는 이 봉사자들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DB를 축적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단원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KOVA에는 각국의 지역정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셈이다.

일본을 벤치마크 하라

요즘 일본은 독도 문제 등으로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의 반열에 진입해 그 위상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일석이조 외교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세계 각국에 파견하고 있는 해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우리나라의 KOVA와 같은 기관에서 6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KOVA를 네 명의 직원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일본의 해외봉사 지원 규모는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해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동시에 그들을 통해 파견 국가에 관한 정보를 살살이 수집해 정부와 기업에서 자료로 활용한다. 나아가 봉사자들의 경험을 기업 현장에서 십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봉사 지원정책은 봉사와 원조를 통한 국가 홍보와 자국의 이익실현을 동시에 거머쥐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해외봉사 활동, 글로벌 비즈니스에 활용성 높다”

(사)한국해외봉사단원협회(KOVA)의 이선무 사무국장과 국제협력 특별강의를 맡고 있는 강순 강사를 만나 KOVA의 현황과 단원들의 활동을 들어보았다.

KOVA의 현황과 활동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KOVA는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올바른 봉사활동 문화와 제3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내 소외계층과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48개 직종의 전문 인력들이 세계 29개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0년 유네스코에서 아시아 4개국에 봉사단원을 처음 파견했으며 올해 1,259명의 파견 단원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KOVA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주지역 15개국과 페루 등 미주지역 3개국, 카자흐스탄 등 구주지역 3개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이집트 등 중동 1개국에서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파견 규모와 봉사 분야는?

매년 약 700명씩 파견하고 있다. 과학교육 및 인력관리 등 교육문화 분야에 26개 직종, 과수재배 등 농림수산 분야에 15개 직종, 물리치료 등 보건위생 분야에 9개 직종, 전기전자 등 보수조작분야에 5개 직종, 용접 등 가공분야에 3개 직종, 태권도 등 스포츠 분야에 5개 직종, 토목건축 분야의 직종 등이다.

봉사활동 지원 외에 진행중인 사업들이 있다면?

각국의 생활정보와 환경정보 등을 단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수집해 각국의 편람을 제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각 나라의 현황은 인터넷과 각종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 정보들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편람은 현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며 얻은 기존의 자료들보다 훨씬 상세한 정보를 담

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등 4개 국가의 편람이 출판됐다. 앞으로도 이 같은 출판사업을 통해 글로벌 지식DB 구축에 일조할 계획이다.

단원들이 현지에서 전해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현재 스리랑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단원은 고위관료층과 친분을 돈독히 해두어 그 단원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스리랑카 수상의 주치의가 왕진을 온다고 한다. 참 재미있는 친구다. 이 단원처럼 현지인들과 매우 친밀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단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봉사활동 외에도 현지인맥이 활용된 사례가 있는가?

물론이다. 한국의 NGO들이 현지 언어를 몰라 어려움을 겪을 때 KOVA의 현지 단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한국 정부가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단원이 인도네시아의 국방부인맥을 활용해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운 바 있다.

마지막으로 KOVA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개도국들과의 상호협력 정신과 순수한 봉사 이념을 바탕으로 파견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책임과 협력의 영역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같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봉사 인력들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현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 기업과 국가 이익에도 일조할 수 있다.

현지 실세들도 봉사자들에게는 관대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파견국에 머무르는 기간(통상 2년)동안 해당 지역 사람들과 직접 부딪치며 얻은 소중한 지식과 경험들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다. 게다가 장기간 봉사활동을 다녀온 사람들을 할 일 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등 이들에 대한 시선마저도 곱지 않다. 하지만 이들만큼 고급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드물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단 자원봉사자들은 파견국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현지인들은 봉사자들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고 한다. 각국의

정부 관료들 역시 자국에 도움을 주러 온 봉사자들에게는 매우 관대하다. 즉 해외 봉사자들은 국내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인적자원이라는 얘기다.

인류애를 구현하려는 봉사정신을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이 인력자원들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한다면 이러한 신흥 시장을 한국의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이다. ☐

※ 본 기사는 벤처포탈사이트인 스카이벤처(www.skyventure.co.kr)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